

세계화의 도전과 노동의 응전 II

편집실

제1장 세계화: 무엇을 뜻하는가

제2장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제3장 세계무역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제4장 세계경제의 주인

제5장 세계투자는 어떻게 이뤄지나

제6장 국제 부채, IMF와 세계은행

제7장 돈이 세계를 돌아가게 하고...

국제 금융 이야기

제8장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비용

제9장 세계화에 대한 대응

선진국들의 힘은 얼마나 큰가? 선진국들 사이의 권력투쟁의 본질은 무엇인가?
개발도상국의 미래는 무엇인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이장에서 다룬다.

1990년대의 정치적 변화

세계 경제에서 힘의 균형을 변화시킨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1990년대에 일어났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 ② 민주주의 체제의 성장
- ③ 민족주의 운동의 부흥

④ 이민 증가

1. 소련과 동유럽의 붕괴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한 다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다.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 사이에 존재했던 냉전과 분열의 종식을 뜻한다. 오늘날의 경쟁

은 세계경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과 독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세력 다툼이다.

소련이라는 강력한 도전자가 사라짐으로써 시방, 특히 미국중심의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많은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크라이나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구소련에서 떨어져 나온 나라들이다. 체코슬로바키아도 체코 공화국과 슬로바키아로 나뉘었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을 사회주의와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와 중앙집중식 명령경제와 일당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다. 이것은 세계 곳곳에서 좌익정당을 약화시켰다.

냉전의 종식으로 세계는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보다 안전해졌다. 세계의 군비지출 또한 감소되어 왔다. 이것은 더 많은 돈이 인간자원 개발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냉전(Cold War)

냉전은 2차대전 이후 미국 중심의 서방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진영 사이에 벌어진 갈등과 대립을 뜻하는 용어이다. 냉전은 군비 경쟁과 정치·경제·이데올로기 투쟁의 형태를 띠었다.

2. 민주주의 체제의 등장

과거에 권위주의 체제였던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 체제로 변했다. 오늘날 세계 인민의 2/3 혹은 3/4이 민주주의 체

제에서 살고 있다. 1993년에만도 43개 나라에서 선거가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의 절반 이상이 민주주의 개혁을 추진하고 했다.

3. 민족주의 운동의 부흥

국가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는 민족주의와 종교에 바탕한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세계 나라의 절반 가량이 내부 민족분쟁을 겪고 있으며, 사상자의 90%가 민간인이다.

4. 대량 이민의 증가

분쟁 지역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민을 떠나고 있다. 세계 인구 200명 가운데 1명이 피난민이거나 유랑민이다. 1970년과 1994년 사이에 피난민의 수는 9배나 늘어 3백만명에서 2천7백만명이 되었다.

부유한 나라들의 힘

부자 나라들을 설명하는 용어는 많다. 선진국, 발전된 자본주의, 제국주의, 제1세계, '북반구' (the North) 따위가 사용되고 있다.

다음 지도를 보자.

세계의 강력한 나라들이 Group of Seven, 즉 G7을 형성하고 있다. G7은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무엇이 이 나라들을 부유하게 만드는가?

이들 나라의 산업화 수준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이들 나라에서는 산업 분야가 농업 분야보다 훨씬 큰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 나라의 산업화는 높은 수준의 기술과 양질의 노동력 때문에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 이들 나라의 생활 수준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
-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를 지배한 역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시아 지역에서만 영국은 인도와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홍콩을 지배했고, 프랑스는 베트남과 캄보디아와 라오스를 지

배했고, 미국은 스페인을 지배했고, 일본은 대만과 한국을 지배했다.

- 선진국들은 군사력도 다른 나라들보다 우세하다.
-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초국적 기업의 90%는 선진국에 본부를 두고 있다.
- 선진국 인구는 세계 인구의 1/5도 안 되지만, 선진국 국민은 개발도상국의 국민들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9배나 많다.
- 선진국은 세계 제조업의 64%를 담당한다.
- 선진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연합(UN) 같은 국제기구들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빈곤이 늘고 있다

선진국에서 빈곤, 실업, 무주택자가 크

게 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선진국들이 사회보장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유한 나라들의 생활의 질

- 선진국에서 약 1억명의 사람들이 공식적인 빈곤선 밑에서 살고 있다.
- 선진국에서 실업율은 8%이상이고, 젊은층의 실업율은 15%에 달한다.
- 선진국에서 3천5백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 선진국에서 불평등은 여전히 높다. 비농업 부문 여성임금은 남자의 75%에 불과하다.
- 미국에는 5백만명 이상이 홈리스(homeless)이다.
- 미국은 부자 나라라고 여겨지지만, 1980년대에는 7백만명이 홈리스이다. 현재 홈리스의 범위는 5백만명에서 7백만명으로 추정된다.
- 1991년의 경우 홈리스의 34%가 아이가 딸린 가족을 데리고 있었다.
- 선진국에서 빈곤의 증가와 더불어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는 "빈곤의 바다"로 둘러싸인 부유층의 지역이 생겨나고 있다.
- 선진국의 몇몇 나라들, 특히 미국 뉴욕같은 경우 탈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공장이 문을 닫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한다.

부유한 나라들이 권력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 정치상황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세계 경제를 둘러싸고 부자 나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수세기 동안 진행되고 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나라들이 번갈아 가면서 세계를 지배했다.

1.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지배

영국은 1750년 산업혁명 이후 1차대전(1914~1918)까지 세계를 지배한 나라였다. 런던은 세계의 수도로 불려졌고, 영국의 파운드화는 지배 통화로 여겨졌다. 영국의 세계 지배는 다섯 대륙에 걸쳐 이뤄졌다.

2. 독일이 권력 경쟁에 나서다

1873년과 1914년 사이에 독일과 미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경험했다. 이들 나라의 경제는 영국의 지배권에 도전할 만큼 급속하게 발전했다. 1차대전은 식민지 경영을 둘러싼 독일과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결과였다. 이 기간 동안 영국의 힘은 급속하게 약화되었다.

3. 전간기(戰間期) : 주인없는 세계

1차대전과 2차대전 사이의 기간, 즉 1918년과 1939년 사이에 어느 나라도 압도적으로 세계를 지배하지 못했다. 하

지만 대립과 갈등은 계속되었고, 미국과 소련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4. 미국의 등장

2차대전 이후(1939~1945)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폐허가 되었고, 미국이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 강대국으로 떠올랐다. 미국경제는 선진국 산업생산의 절반을 상회했다. 미국 경제력의 배경은 잘 교육받은 노동력, 최신 경영 기술, 현대적인 대규모 자본투자, 엄청난 내부 시장이었다. 미국은 세계적 혁신의 중심지였다. 새로운 상품과 기술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미국 기업의 직접 투자와 무역을 통해 세계로 퍼져나갔다.

5. 소련이 미국과 경쟁하다

2차대전 이후, 소련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초강대국으로 떠올랐다. 산업생산은 엄청나게 늘었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다. 중동부 유럽에 군대를 주둔시켰으며, 제3세계의 민족해방운동을 직접 간접으로 지원했다.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시기는 냉전기로 불리운다. 이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서로 경쟁했다.

6. 미국경제의 쇠퇴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초강대국이었지만, 경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래 경제성장을

과 생산성증가율은 독일이나 일본보다 뒤쳐졌다.

7. 일본이 경제강국으로 떠오르다

일본은 서구 국가를 제외하고 경제적 초강대국이 된 최초의 국가였다. 일본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고속성장을 하여 미국과 동등한 경쟁국이 되었다. 일본은 주요 자본 수출국이 되었고, 제조업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소련 몰락으로 일본은 세계 제2위의 규모를 가진 경제대국이 되었다.

8. 소련의 붕괴

1990년 소련의 붕괴는 미소 냉전의 종식을 낳았다. 이것은 서방 선진국이 아닌 나라 가운데 세계경제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뜻하며, 그 지배력이 일본과 독일과 미국 같은 서방 선진국들로 더욱 집중되었음을 뜻한다.

9. 빅 쓰리(Big 3)의 대립과 갈등

미국이 중요한 경제대국으로 남아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역할은 일본과 독일에 비해 쇠락했다. 미국은 한때 핵심 제조업을 지배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일본은 자동차, 금속제조, 전기제품, 철강 등에서 미국과 독일보다 생산성이 15~45% 앞섰다. 독일은 철강산업과 금속산업에서 미국의 생산성에 맞먹고, 식품산업에서는 일본을 앞섰다.

미국 기업들은 개인용 컴퓨터 시장을 1985년에 59%, 1992년에 70%를 장악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미국제 컴퓨터의 외국산 부속품은 10%에서 30%로 늘어났다.

빅 쓰리(Big 3)라 불릴 정도로 권력과 자원이 미국과 일본과 독일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 경제에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때때로 대립하고 갈등하지만, 때때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10. 세계자본주의의 대혼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까지 멕시코는 '모델 경제'로써 각광받았지만, 1994년 외국인의 증권 투자 및 단기 자본이 멕시코를 이탈하여 미국 금융시장으로 들어감으로써 폐소화의 폭락을 가져오고 경제가 붕괴되었다. 멕시코의 위기 상황은 1995년 1월 미국이 500억 달러의 국제 신용을 마련해 줌으로써 진정되었지만, 금융위기로 멕시코 경제는 악화되었고, 국민 생활 여건,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조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멕시코가 환란을 겪은 지 2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불어닥쳤다. 세계경제의 발전 모델이라고 칭송받던 아시아의 신흥개발도상국들(태국, 인도네시아, 한국 등)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IMF의 금융지원을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특히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나라들 가운데 부자나라들의 클럽인

OECD에 처음 가입한 한국은 1997년과 1998년 1월 사이에 원화 가치가 50% 이상 하락했고, IMF의 570억 달러짜리 구제 프로그램이 발표되었다.

이들 나라들은 198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에게 굳게 닫힌 금융시장과 주식시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래 급격한 자유화와 민영화 조치로 인해 국가의 시장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졌고, 부패한 국가가 경제 악화를 방지하기 보다는 방조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다.

아시아의 경제위기는 러시아와 브라질을 위시한 남미 각국의 경제위기를 초래했고, 전세계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다.

가난한 나라들

가난한 나라들은 개발도상국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많은 나라들이 남반구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남' (the South)이라 불린다. 다른 용어로 제3세계 또는 저개발 국가라 불린다. 이들 나라는 선진국 혹은 부유한 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다. 지난 수 십년동안 대만과 브라질과 한국 같은 나라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나라들의 저 발전을 수반한 것이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신흥 공업국(NICs)라 불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후발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이라 불리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은 몇가지 공

동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신흥공업국

신흥공업국은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달성한 나라를 말한다. 대표적인 나라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4개국이 있다.

가난한 나라의 현실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에 의해 정치·경제적으로 지배당하고 착취당한 역사를 갖고 있다.
- 2차대전 이후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정치적 독립을 달성했다. 예를 들면, 한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했고,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했다.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빈곤, 저발전, 질병, 더러움, 기아로 고통받고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경제는 후퇴했다. 개발도상국에서 13억명의 인구가 빈곤선 밑에서 살고 있다.
-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경제는 엄청난 빚으로 피폐해 졌다. 제3세계 부채의 총액은 1970년에 1천억 달러에서 1988년 1조달러로, 지금 1조9천억 달러로 늘어났다.
- 개발도상국은 세계 제조업 생산품의 14%만 생산하며, 세계 에너지의 1/4만을 소비한다.
- 개발도상국에 사는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기초적인 의료, 교육, 상수도, 영

양 따위의 사회적 기본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해 있다. 에이즈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천7백만명 가운데 9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 개발도상국에서 매년 1천7백만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와 결핵같은 전염성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8억명의 사람이 충분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세계 인구 10명당 1명꼴인 5억명의 사람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통합되는 세계 경제?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로 통합되어 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까지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이 세계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1990년대에 더 많은 나라들이 세계 무역의 주류에 합류했다”고 선전했다.

1970년과 1992년 사이에 개발도상국이 세계 노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났고, 이 때문에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조건에 많은 개선이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장과 생활조건 향상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몇몇 개발도상국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신흥공업국이란 무엇인가?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이라 불리는 네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이다.

이 나라들은 급속히 공업화되었기 때문에 신흥공업국이라 불린다. 때때로 이 나라들은 '아시아의 호랑이' 이라고도 불린다. 동남아시아의 다른 네 나라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중국이다. 후발신흥공업국 가운데 중국이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경제는 연간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1992년에 중국은 세계 11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다음 세기초에 일류 무역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구매력 부문에서 중국이 세계 3위를 차지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1997년 7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인 홍콩을 영국으로부터 되찾았으며, 엄청난 무역흑자로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최근 발생한 아시아 지역의 경제위기도 아직 중국 경제를 교란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 이야기 되고 있다. '새로운 신흥공업국'이란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에 비해 산업 발전이 늦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 기반이 큰 나라들을 말한다. 이들 나라들은 경제성장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아직 극적인 성장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

후진국들은 형편없는 사회 기반시설,

악화되는 생활조건, 경기침체, 높은 실업율, 비숙련 노동과 엄청난 비공식 부문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후진국들이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민족 사이에 심각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 대만, 브라질 같은 개발도상국들이 세계 경제로 뚜렷이 통합되고 있는 반면에 후진국들은 세계경제로부터 점차 소외당하고 있다.

아프리카: 세계의 부랑자

48개의 후진국 가운데 33개가 아프리카에 있다. 특히 아프리카에 있는 후진국들은 정치와 경제가 불안정하고 사회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 아프리카 대륙의 외채 부담은 날로 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아프리카 대륙 나라들의 빚은 국내총생산(GDP)의 83%인 3조 1,131억 달러나 되었다. 가장 낙관하는 전망을 보더라도 아프리카에서 24개국이 21세기에도 불안정한 부채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 아프리카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최소한에 머물고 있다. 세계의 외국인 투자에서 사하라 남부 아프리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에 6.8%에서 1994년에 2%로 떨어졌다.
- 빈곤이 늘고 있다. 빈곤선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 지역 인구 6억 9천만명 가운데) 2억명에 이르

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가장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50% 늘어난 3억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아프리카 대륙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해마다 4~5%의 경제성



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 약 20% 이상의 투자 증대가 이뤄져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분쟁으로 쪼개지고 있다. 1994년 이후 알제리, 앙골라, 리베리아, 르완다, 시에라레온, 소말리아, 수단,

이디오피아, 콩고 따위의 나라들에서 내전과 전쟁이 일어났다. 때때로 정치·경제적인 이유로 구호 활동은 차단당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빈곤과 기아는 늘고 있다. 1994년의 경우 르완다에서는 GDP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1995년에만도 3백만 명 이상의 난민이 고향을 떠나 떠돌고 있으며, 음식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악화되고 있는 아프리카 상황은 다른 대륙에도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그 중에서도 한국은 (현재 매우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기는 하지만) 아프리카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경제와 부유한 사회를 갖

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정책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 국민들의 생활조건 향상을 고려해야 함은 분명하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운동이 노력해야 한다.

국제기구들

세계 각국은 자국 이익을 쫓아 지역과 시기에 따라 여러끼리 뭉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G7(The Group of Seven)

가장 강력한 경제를 갖고 있는 7개국이 G7에 속해 있다. 이들 나라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보통할 목적으로 정기 모임을 열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와 프랑스가 여기에 속한다. G7은 세계 경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하기도 한다.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ECD는 2차대전 이후 유럽 차원의 경제협력에 중

진행기 위해 1948년에 만들어진 기구이며, 부지나라 등의 클럽으로 불리기도 한다. 1961년 미국과 캐나다가 회원국이 되었고, 후진국에 대한 개발원조를 하기도 한다. 현재 29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은 1996년 가입하여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개발도상국으로 OECD 회원국이 된 멕시코와 한국은 OECD 가입 직후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외국으로부터 자금원조를 받은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다.

OECD 회원국(29개국)

그리스(1961), 네덜란드(1961), 노르웨이(1961), 뉴질랜드(1973), 덴마크(1961), 독일(1961), 룩셈부르크(1961), 멕시코(1994), 미국(1961), 벨기에(1961), 스웨덴(1961), 스위스(1961), 스웨덴(1961), 아이슬란드(1961), 아일랜드(1961), 영국(1961), 오스트리아(1961), 이탈리아(1961), 일본(1964), 제보공화국(1995), 캐나다(1961), 터키(1961), 포르투갈(1961), 폴란드(1998), 프랑스(1961), 핀란드(1969), 한국(1996), 헝가리(1998), 호주(1977).

(*) 안은 가입년도

3. 비동맹운동(Non-Aligned Movement)

1961년 신생독립국들이 모여 비동맹운동(NAM)을 만들었다. 비동맹운동을 만든 주된 이유는 신생독립국들이 강대국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세력

으로 대립방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들은 국제연합(UN) 같은 국제기구에서 블록으로 투표하거나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비동맹운동의 움직임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치적인 쟁점으로 떠올랐다. 1970년대의 경우 비동맹운동은 천연자원 생산국을 위해 묶어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만드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4. 석유수출국기구(OPEC)

이 기구는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이 석유의 가격과 공급 정책을 조정할 목적으로 1960년에 만들어졌다. OPEC은 1970년대에 석유 가격을 인상하여 세계적인 경기 후퇴를 일으킨 바 있다. 알제리, 이라크, 리비아, 쿠웨이트, 가봉,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 이어 이집트, 에콰도르가 OPEC 회원국으로 있다.

5. 국제연합(UN)

UN은 국제평화와 안정보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가연합이다. UN은 난민, 경제발전 지원, 재난 구조활동, 문화협력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UN은 UN다목적평화군 창군도 기구들을 갖고 있다. 오늘날 UN은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회원국으로 갖고 있다. 1990년 현재 회원국은 185개국이다.

지역 통합이란 무엇인가?

한국과 동아시아 나라들이 보다 협력적인 경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경은 유지되더라도 무역 장벽은 제거된다. 다른 말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무역 거래에서 수입품 관세가 철폐될 것이다.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경제 국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동아시아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물건들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세 기준이 확립될 것이다.

- 노동과 자본을 포함한 제화와 서비스는 동아시아 지역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지역 나라들 사이의 국경 통제가 완화되고 지역 국가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웃 국가를 여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비슷하게 이웃 나라들 사이에 자본 운동에 대한 통제가 사라진다.

- 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이자율, 세금, 복지정책 따위에서 공통된 경제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이를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교통, 통신 같은 사회기반시설들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왜 지역 통합이 중요한가?

아시아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보다 광범위한 지역경제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는 유럽연합(EU), 북미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따위의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어 경제 변동에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아시아에는 아직 본격적인 지역차원의 경제협력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못하다.

● 1997년 말 경제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에는 모두 2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일하고 있었다. 지금도 10여만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세계화의 압력으로 그 동안 단혀있던 한국 시장도 서서히 외국 자본에 열리고 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 포드가 기아 입찰에 참가하고, 서울은행과 제일은행이 외국은행에 매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90년대 들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지에 한국 자본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 제1세계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과 세계무역기구(WTO)와 세계은행 같은 기구를 이용해서 지역 경제를 통제하려는 도전들이 커지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EU)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같은 다른 지역 경제블럭의 등장은 동아시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하나로 묶이지 않으면 주변화되고 낙후된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동아시아 지역에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중심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이 만들어져 있지만,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지역의 경제강국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협력기구가 되지 못하고 있다.

●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뿌리뽑을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되고 있으며, 1997/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세계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으로부터 지켜낼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 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의 노동과 자본 교류가 급증해 왔다. 이러한 시대의 추세에 발맞춰 동아시아 지역의 자본, 노동, 천연자원 같은 자원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국제연대, 특히 동아시아 지역 노동운동의 연대를 강화하자

-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은 한국 노동운동에도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점증하고 있는 경제통합이 동아시아 지역의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삶에 도움을 준다는 보장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한국 사회가 세계 경제체제와 점차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한 한국노동운동의 관심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점점 커지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에 발맞춰 각국의 노동조합운동 역시 사회헌장(Social Charter)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역 차원의 연대와 공동사업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다.

- 유럽의 경우 각국의 노동조합들이 유럽노동조합총연맹(ETUC)으로 결속

되어 있고,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남아프리카노동조합회의(COSATU)를 중심으로 지역 노동조합들을 묶은 남부 아프리카지역노동조합조정위원회(SATUCC)가 조직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동아시아 각국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현재의 정치 경제 흐름으로 볼 때, 아시아통화기금(AMF)같은 동아시아 차원의 경제협력체가 조직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통합이 급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노동조합연대회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생각해볼 점

- 한국의 공장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혹은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의 대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전된 공장들이 사양산업의 출구를 찾아주고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므로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결과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일러러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효과를

낼지도 합니다. 특히 통일어 된다면, 남북한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치열해 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단적인 민족주의 감정이나 지역이기주의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전지구적인 경쟁이라는 것은 나라들 사이의 경쟁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각국의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과 일자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들은 공장을 임금이 낮은 나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노동조합운동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